

2022년 10월 02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96편 1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305(통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욥기 9장 1~10절 (구약p.769)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3.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4.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라
5.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달지 못하며
6.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7.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8.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9.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10.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 ◎ 말씀선포 /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죄의 은혜입니다. 이는 인간이 죄인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죄인이 아니니 죄 사함의 은혜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분명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말씀합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3장 9~12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과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인간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 1.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 욥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므로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단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한마디로 변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내용은 오직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고 말씀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죄인들에게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진홍 같은 죄를 양털같이 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사죄의 은혜를 입은 것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은 흠도 많고 티도 많은 인간을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크고 깊은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 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 욥은 하나님이 완전히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힘이 강하셔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형통할 수 없다고 진술합니다. 본문 4~7절입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고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우상으로 숭배하는 대지와 해와 하늘과 바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둥을 흔들어 지진이 나게 하시며(계11:13), 해와 별을 다스리시고(계12:4),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막4:39). 참으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한없이 작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영광 앞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우리의 삶은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선함으로 행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더욱 나의 악함을 알고,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 3. 기적으로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 하나님이 초자연적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8~10절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밝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고 했습니다.

다.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많은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 다시 말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을 위해 행하신 열 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신 사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며, 반석을 쳐 물을 주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이 모든 기적 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하시는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 등을 일으키심으로 친히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위한 기적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반드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할 것임을 확증하십니다. 성도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과 영생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에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선하심으로 인도하사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바로 성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도우시며,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이 바로 “돕는자, 대변인”이라는 뜻인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도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알아 오직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으로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순복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이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어떠한 시도로도 스스로를 성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오늘도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310(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 폐 회 / 주기도문